

코미세 오페라 베를린 최초 내한 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무대에

가을마실은 무등산으로

‘무등산 남도피아 가을마실 관광문화제’

21~22일 공연·체험·먹거리장터

오늘~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코미세 오페라 베를린(Komische Oper Berlin)과 영국의 '1927' 그룹의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을 극장1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ACC 동시대 공연예술페스티벌'의 하나로 '코미세 오페라 베를린'의 최초 내한 공연이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가장 유명한 오페라이자 최후의 작품인 '마술피리'는 전 세계 무대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장 자주 공연되는 독일 오페라다.

이번 작품은 독일 '코미세 오페라 베를린'과 영국의 애니메이션 공연제작 단체인 '1927' 그룹이 기존 무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제작했다.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애니메이션 영상과 실제 성악가가 영상에 맞추어 연기해

마법과 같은 무대효과가 어우러지는 웅복합 오페라라는 점이다.

'마술피리'는 2012년 11월 25일 독일 베를린 '코미세 오페라 베를린' 극장에서 초연된 후 L.A, 북경, 상해, 바르셀로나, 모스크바, 부다페스트 등의 주요 오페라 극장을 포함해 전 세계 18개국에서 325회 공연됐으며, 약 36만의 관객들과 언론에 극찬을 받았다.

타미노 왕자가 파미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긴 여정을 줄거리로 하며 애니메이션 배경과 영국 특유의 유머로 연출된다.

각테일 잔에서 물놀이하는 코끼리, 날아다니는 피리, 춤추는 작은 종, 자욱한 연기 등, 애니메이션의 모든 이미지가 '1927' 그룹의 풀 배트에 의해 한 장 한 장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미술적 가치가 높은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무대 세트를 대신한 판타지 애니메이션과 오페라의 이색적인 조합은 마술피리와 초현실주의, 모험과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마술처럼 풀어놓는다.

이번 공연은 베를린 3대 오페라 극장

인 '코미세 오페라 베를린'의 ACC의 단독공연으로 20일 오후 7시30분, 21일 오후 4시, 22일 오후 3시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연수 기자

'2017 무등산 남도피아 가을마실 관광문화제'가 오는 21일 이틀 간 광주호 호수생태원 일대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가을마실 관광문화제'는 광주시 민선6기 대표 문화·관광사업 중 하나로 무등산국립공원과 광주호 주변 생태 숲, 누정, 가사문학 자원 등을 연결하는 '남도피아' 사업의 하나이다.

이번 행사는 풍년기원 한마당, 버스킹 등의 '문화예술공연', 무등산분청사기 감상 및 도예체험, 평촌분재 등 '전시 및 체험', 선비·누정문화 체험,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먹거리 장터 등 '풍류남도 나들이'로 진행된다.

21일에는 광주호 생태원 원형무대에서 한바탕 신명나는 전통타악 광대 길놀이와 판굿을 선보인다.

빅사이즈 크루의 스트릿 댄스와 전통 음악이 결합된 퓨전 퍼포먼스,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남창동 줄타기, 무등산호랑이춤, 호랑이탈 체험 등이 준비돼 있으며, 관객과 함께하는 풍년기원 줄다리기로 마무리한다.

왕비들나무 앞 공터에서는 30분 간격을 두고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클래식+재즈앙상블 'WE', 더블루-이어즈가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사한다.

22일에는 전통타악 길놀이를 시작으로 전자바이올린과 함께하는 팝페라, 혼성 아카펠라그룹 'THE PRESENT', 성악과 비보이 콜라보레이션, 마임극단 동심의 비눗방울 퍼포먼스 등이 이어진다.

충효왕비들 앞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장터를 열어 핫도그, 솜사탕, 커피 등 먹거리 장을 마련하고, 한복당과 취가정에서 전통방식 책갈피 만들기, 꽃지짐 등 전통음식, 갑옷과 장검을 착용해보는 '나는 갑검명이다' 등 다양한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박태명 전통문화관광장은 "많은 시민들이 힐링과 즐거움을 찾고 무등산권 문화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보람 기자

슈바인 학센 · 환상적 레포츠 · 나체주의 녹색공원...



김성호 교수의 자동차로 유럽여행 <4>

흑맥주 발라가며 오븐에서 구워낸 족발
마리엔 광장 아우구스티너 식당 문전성시
뮌헨의 명물 영국정원, 내륙 서핑의 성지



독일족발 음식인 슈바인학센으로 유명한 뮌헨 마리엔광장의 아우구스티너 카페식당에 선 필자.

독일에 가면 반드시 먹어보아야 할 요리로 가기 전부터 버르던 음식은 독일식 족발이었다. 필자는 젊은 시절 서울의 낙원상가와 하리우드 극장을 자주 갔었기 때문에 그 골목의 족발요리가 펼쳐진 풍경과 그 추억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국적인 독일의 족발이라는 오래전부터 구미에 당길 수밖에 없었다.

슈바인 학센(schweins haxen), 이 생소한 이름은 독일의 국민요리로 널리 알려진 독일식 돼지족발 요리이다. 필자도 정작 유럽 자동차여행을 계획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유명하다고 하니 우리네 족발과 비교할 겸해서 반드시 들려야 할 필수 코스였다.

구도심의 관광코스인 마리엔 광장에 위치한 '아우구스티너' 식당은 어쩌나 유명한지 문앞이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래도 처음 둘러보는 길에는 슈바인 학센 전문식당인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작정 찾아간 어느 호텔 프론트에서 학센 식당을 추천받은 후에야 그곳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맛집임을 알아차렸다.

슈바인 학센은 흑맥주를 발라가며 오븐에서 구워낸 족발인데 우리는 부러 흑맥주를 주문하여 곁들여 마시면서 맛집의 비결을 음미했다. 우리의 족발과 비슷한 맛인데 단지 발가락뼈가 없는 점이 달랐다. 발목만 재료로 사용하여 발가락뼈를 발라 먹는 오돌오돌한 재미는 없구나... '학센'이라는 말 자체가 발목이라는 뜻이니 그리 알고 먹어야지...

하여간 이 음식은 상치 대신 샐러드를 곁들

여 먹는 법도 우리와 식습관이 달랐다. 어쨌든 학센은 축제현장이나 비어하우스에서 인기라고 한다. 겉은 다소 딱딱하지만 속살은 연한 색깔에 부드러운 게 일이었다. 또한 길거리 카페에서 모르는 이방인들과 마주하며 즐겁고 유쾌하게 먹는 개방적인 분위기도 일품이었다.

뮌헨에서 명물로 치는 곳은 영국정원(Englischer Garten)이다. 유럽이야정원이 흔한 곳이니까 그렇고 그런 정원이 아닐까 여길 수 있지만 이 곳은 아주 특별하다. 프랑스의 유명관광지 니스의 해변 이름도 영국해변인데 영국과 두 번이나 피 튀기도록 혈전을 벌였으면서도 왜 영국정원이라고 명명했는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도심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그 면적이 3.7km나 되니 우리 식으로 말해서 100만평이 넘는다. 뉴욕의 명물 센트럴공원보다 넓다. 이곳은 200여년 전에 늪지대를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라 강이 공원을 가로지르고 공원내 도처에 작은 물결이 흐르고 있다. 잔디밭도 드넓고 녹음이 짙푸르니 도심에 이런 쉼터가 있는 도시 인프라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도 많이 있고 특히 날씨가 좋은 날엔 일광욕하는 시민들로 넘쳐난다. 그들은 비키니는 보통이고 나체로 선물을 즐기다가 수시로 주변 수로에서 물놀이를 즐긴다. 즉, 완벽한 수변공원이다. 그래도 밤에 갑자기 나타난 벌거벗은 여자들로 인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곳의 하이라이트는 나체주의 녹색공원이니, 드넓은 공원이니, 친숙한 수변공원이



영국정원내 이사르강의 서핑.

니 등등의 소개보다 리버 서핑이 제격이다. 이색 스포츠로서 도심공원의 개울에서 일년 내내, 주야로 많은 애호가들이 즐기는 것이다. 한 마디로 내륙서핑의 성지이다. 바다로부터 1,000km쯤 내륙에 자리잡은 곳에 일년 내내 서핑을 즐기는 명소로 만든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과연 밤에도 서퍼들의 줄서기로 즐기니 여름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서핑존이 유명한 것은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영원한 파도'를 수시로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곳 이사르 강은 말이 강이지 폭이 15미터에 불과한 개울에 불과했다. 단지 서핑존이라는 서핑스팟(surfing spot)이 있는 부분은 폭이 좁아 물살이 거센 것이 특징이다.

서핑존 바로 상류 10미터 거리엔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에서 서퍼들의 물놀이를 지켜보는 것도 아슬아슬했다. 물살이 워낙 거

센 곳이라 상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했는데 물살로 뛰어 들었다가 바로 물결에 휩쓸려 가는 서퍼들이 부지기수였다.

따라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정말 스틸이 넘쳤다. 정작 환상적인 레포츠를 직접 즐기는 사람의 재미는 얼마나 대단할까! 오래 버티다가 나오는 서퍼들의 얼굴표정은 의기양양했다.

두려움을 재미로 바꾸는 이런 레포츠의 매력은 정녕 대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빈약한 관광자원도 죽여주는 관광매력물, 즉 길러컨 텐츠로 바꿔 놓은 그 착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뮌헨에 바이에른 왕가의 궁전인 레지덴츠 궁전도 있고 BMW 자동차박물관도 있지만 생략하고 다음엔 코편한겐 유럽에 대해 소개한다.

/동신대 교수 · 호텔관광학과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품질 · 경영 · 시스템인증

ISO 인증 9001
KSA 인증 9001 · 2001인증

방수! 직접 시공하세요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적벽돌, 흙집, 드라이비트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히 물청소하시고
-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가격이 저렴하며, 시공면을 깨끗이 물청소 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무독성제품입니다.

ENG. 이앤지 방수, 박막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역사와 전통에 '미화표'를 꼭 확인 하세요!

062) 367-7755

시외지역택배우송함
광주시 서구 농성동 660-29